

천태종 금강불교대 내년 개교

교계 대학설립 준비현황

새로운 세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대학설립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천태종이 내년 정규대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태고종과 보문학원도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태고종과 천태종, 보문학원은 96년 교육부의 대학설립 자율화 방침이 발표되면서부터 정규대학과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다. 97년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천태종(총무원장 언덕)은 4년제 정규 단과대학인 금강불교대학을 2000년 3월1일 개교할 계획이다. 금강불교대학은 불교학

과 동양철학과 2개학과에 입학정원 각 50명씩 1백명(총정원 4백명)으로 문을 연다. 이에따라 천태종은 이미 충남 논산에 2만46㎡(6천7백5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급근대로 교사신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금강불교대학은 천태종 승려 양성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땅의 인재 육성을 위해 개방형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천태종은 금강불교대학 입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종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고종 정규대 포기 '동방불교대학원' 추진 보문학원 '한국불교대학원대학' 기금 조성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해말 정규대학 설립을 포기하고 올해 다시 '동방불교대학원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동방불교대학은 교양대형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태고종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대학설립을 추진했다가 수도권경비위원회가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서울·경기도 내 대학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와 난관에 부딪혔었다.

동방불교대학 홍성복 교무처장은 "정규대학대신 현재의 총무원 건물을 학사로 활용할 수 있고 수익용재산 5억원만으로도 설립 가능한 대학원대학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종단 사찰재산전용, 종도성급, 동문성급 모금 등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방불교대학원대학은 우선 불교학과 단일 석·박사 과정(총정원 1백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방불교대학원대학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법과학과 불화과를 증설, 불교문화전문대학원대학으로 특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보문학원(이사장 덕혜스님)은 '한국불교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을 세우고 96년 교육부로부터 법인장관변경인가를 받아놓고 건립기금 조성에 전념하고 있다. 보문학원은 98년 3월1일에서 99년3월1일로 한차례 학교설립인가를 연기신청해 놓고 있으며, 2002년내에 서울 서초구 일대에 '한국불교대학원대학'을 설립할 방침이다. 1천80여평의 부지에 불교학과 단일학과로 문을 열 한국불교대학원대학은 총립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를 거친 청소년들이 한국불교대학원대학에서 불교전문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마스터플랜 아래 추진된다.

태고종, 천태종, 보문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들 학교는 대학교육의 보편성과 함께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1세기 불교인재양성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이원우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부터 정부의 대불교계 공약에 대한 입장설명을 듣고 있다.

"대장경전산화 계속 지원"

97년 대통령선거 불교계 공약

"중앙정보박물관 건립 지원 어렵다"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불교계에 공약했던 사항들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조계종에 전달됐다.

이원우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은 2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1월 21일 고산스님과 중앙총회 의장 법통스님이 김대중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불교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전달했다.

- 문화부 예산의 1%확보 및 불교문화재 보수 지원 예산의 증액
△99년도 문화부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0.7%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불교문화재 보수 예산도 97년 160억, 98년 206억, 99년 21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 사찰 주변 개발 방지
△전통사찰 보존법의 개정 등으로 불교계 의견을 대폭 수용해 왔다. 향후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반영 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

- 사찰문화재 도난방지
△도난방지 시설설치 권장과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법인 검거 및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경찰청 경찰청 등 수사 전담 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사찰문화재 수사 전담반 운영도 검토하겠다.

-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허용 및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감면
△현재 법제처가 심의 중인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 중앙정보박물관 건립 지원
△타당성과의 형광성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보박물관 건립 예산 지원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황룡사지 미륵사지 등 복원
명확한 고증과 고건축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후 복원 여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지원 확대

△내년을 사업 완료시점으로 정하고 계속 지원할 방침. 총 사업비 54억 중 국고부담이 27억인 점을 감안, 금년 지원 예산 10억8천4백만원 포함해 그간 19억3천8백만원이 지원됐다.

-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 건립 관련 의료시설 지원금 지원
△경기도 일산 지역에 설립중인 동국대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건립 재정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용자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함. 임연태 기자(ytlm@buddhopia.com)

작년 11월 실시 포교사 고시

'8번 문항' 놓고 의견분분

승가해석 '출가 2부중' - '4부대중' 논란

지난 해 11월 실시됐던 조계종 포교사 고시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지선다형 8번 문항. 상가(sangha, 승가)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예문으로 ①출가자와 재가신자로 구성된다 ②4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 ③불교 이전의 의미는 공화국이나 조합이다 ④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 제시됐으며, 정답은 4번이다.

그러나 상가는 출가자와 재가신자로 구성된다거나,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상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석일 뿐이지 맞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지도본" 제3권에서는 상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많은 스님들이 한 곳에서 화합하는 것을 승가라고 부른다. 비유컨대 큰 나무들이 때를 지어 모여 숲이 되는 것과 같다. 낱알의 나무를 일컬어 숲이라고 하지 않으며, 낱알의 나무를 제외하여도 숲이 되지 않는다. 여러 스님들이 화합하기 때문에 승가라는 이름이 생긴다."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은 "전통이 곧 정통은 아니다"며 엄밀한 해석을 요구했다. 홍 주간은 "승가 사부대중으로 구

성되었다면, 재가 2부중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승가는 출가 2부중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주간은 또 "신님이나 학살, 주장 등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혼동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승가가 4부대중의 공동체라면 출가의 규약은 재가자도 따를 수 있도록 느슨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승가는 비구, 비구니 2부중을 말하지만, 역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넓게 해석해 4부대중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문제를 출제한 포교원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승가를 넓게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사부대중이 종단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홍 주간은 이밖에도 '야사의 부모의 귀의'를 '출가'로, '고구려 최초의 사찰은 초문사'를 '성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단의 권위를 반영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인식해 문제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98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1998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98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98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령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 수록내용: 1998년 1년분(157호~204호)
- 가격: 1권 60,000원(우송시 5천원 추가)
- 은행입금: 국민/023-25-0007-617 농협/053-01-227471 우체국/010041-0255243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기획관리부 (전화 02-737-8881)

◇ 태고종·천태종·보문학원이 대학과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이 위치한 태고사.



부산 수영구는 10원짜리 동전 100만개를 모아 실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생계비도 지원했다.

1천만 불자들이 10원씩 모으면 1억 원이 된다. 100원씩 모으면 100억 원, 1000원씩 모으면 1000억 원이 된다. 100억 원이 있으면 지금 교계에서 가장 시급한 불등의 불을 끌 수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불교TV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1천만 불자들은 불교TV를 살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불교TV는 많은 사람들을 제한없이 교화할 수 있는 법당이고

목어

불교TV 살리는 길

불자는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만 보살일 수 있다. 따라서 불자가 법을 전하고 법당과 법사를 외호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불교TV를 살리는 일은 절을 세우고 종을 주조하는 불사보다 수승하다. 도심과 산중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 늘 법당을 열고 법향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들이 어찌 이 일을 의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btn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자들은

포기한다면 시대를 거스르거나 시간을 멈춰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천만불자가 천원씩 모아 불교TV를 정상화시키면 그 천원은 그냥 천원이 아니다. 법당을 세워 수많은 대중에게 불을 공양한 가피의 천원이다. "보살은 온갖 여래의 가르침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발심하며,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킨다"(화엄경)

천만 불자여러분, 천원 투자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 드십시오.

기도의 영험이

적멸보궁의 방광(放光)으로 현현하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1983년 9월 24일, 동생과 철야기도를 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갔다. 암선고를 받고 부산에서 왔다는 보살님 내외와 철야기도를 하다가 새벽 2시 45분쯤, 세수도 하고 다기물도 갖기 위해 보살님 내외와 보궁 뜰로 나왔을 때였다. 보름이 지난 지 한참이라 캄캄하던 사방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밝혀졌다. 번개가 칠 때처럼 밝은 빛이 한동안 사자산 연화봉 꼭대기에서 비추는 것이었다. 암선고를 받고 기도중이라는 보살님은 적멸보궁의 부처님 방광을 목격하고 기도의 가피로 건강해졌다고 했다. 나는 그 이후 불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보살행을 닦으며 살고 있다. - 재현에서 권 대표님 -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간 것이 197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 9명 중에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던 7명이 적멸보궁 위 연화봉에 비추는 방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색 영통한 빛이 오렌지색 또는 황금색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는데 맑은 광채 때문인지 나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경이었는데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 중이던 우리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이때의 방광은 우리 일행 외에도 인근 마을에 불이 있어 나왔던 이진수 씨가 보았는데, 절에 불이 난 줄 알고 급히 달려와 보니 묘사제는 환한 광채에 뒤덮여 있었고, 묘사제 보살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놀라움과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부산에서 박성준 -

대한불교 조계종 법흥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73) 374-9177 팩스 (0373) 374-9178
• 천일 기도 기간 내내 기도 동참 및 10만등 불사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 또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 불사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 도량이었던 법흥사가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모아 중흥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의 중흥 불사 거둬나케 될 법흥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희망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2001년 9월 20일(음) 회향

법흥사의 중흥불사는 온 국민의 동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나라의 흥통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창건정신에 투철할 것이며
참배와 기도를 위한 불자들에게는 내집처럼 편안한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이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는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